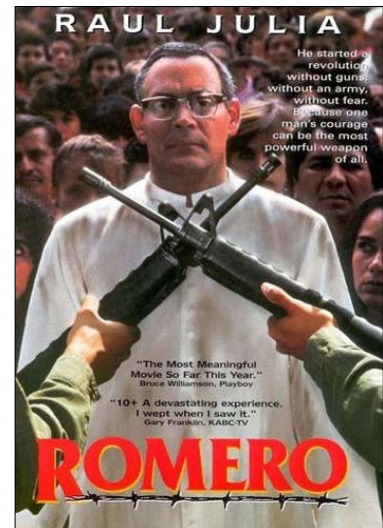


■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간 지도자,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

박 병 규

영화 <로메로>를 본 사람 중에는 이 대주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영화가 엘살바도르 독재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하나, 초점은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보다는 ‘불온한 진리’를 퍼뜨리다가 1980년 3월 24일 독재정권의 총탄에 희생된 가톨릭 대주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와 진리의 화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오스카르 아르놀포 로메로(Oscar Arnulfo Romero) 대주교. 그러나 엘살바도르 현대사에서 그의 죽음은 지난한 50년(1931~1979) 군부독재에서 13년(1980~1992)에 걸쳐 약 7만 5천 명의 희생자와 7천 명의 실종자를 양산한 내전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위치한다. 희생된 사람이 어찌 로메로 대주교 한 사람뿐이겠는가. 대주교가 피살되기 전에도, 피살된 후에도 엘살바도르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해마다 전세계의 양심이 로메로 대주교를 추모하는 까닭은 대주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수



영화 <로메로>(1989) 포스터



1980년 3월 24일 로메로 대주교의 피살은 50년에 걸친 엘살바도르 군부독재의 필연적인 결과요, 그 후 13년(1980~1992)에 걸쳐 약 7만 5천 명의 희생자와 7천 명의 실종자를 양산한 내전의 시발점이었다. 사진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 세워진 ‘기억과 진실을 위한 기념비’. 내전 기간에 희생된 사람들의 성명을 새겨 넣었다.



엘살바도르의 독재자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오른쪽 사진)

많은 무명의 로메로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처절한 엘살바도르의 현대사는 1931년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Maximiliano Hernández Martínez, 1882~1966)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막이 올랐다. 독재자라고 하면 초법적인 권력행사 외에도 흔히 부정축재와 방탕한 생활을 떠올리는데, 적어도 이 점에서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사생활은 극도로 엄격했다. 가장으로서도 모범적이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일례로, 1935년 엘살바도르에서 제3회 중미·카리브 야구대회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당시 공무원들은 너나없이 공짜표를 얻으려고 안달이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부인과 자식들을 대동하고 장사진을 이룬 경기장 매표소 앞에 줄을 섰고, 차례가 돌아오자 돈을 내고 입장권을 샀다. 이렇게 대통령이 모범을 보였으니,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공짜구경할 생각을 접었다.

이것뿐이라면 정치적인 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

권의 운명이 다하는 날,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밀반출할 재산은 커녕 당장 필요한 망명비용조차 없었다. 결국 후원자에게 급전을 빌려 과테말라로 떠났고, 후일 사재를 처분하여 그 돈을 갚았다. 축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다. 간혹 국가의 부를 자기 재산으로 여기는 독재자도 돈에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름의 종교와 믿음에 투철한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애초부터 재물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망명한 후에는 빈둥거릴 수밖에 없는 마이애미 생활이 너무 싫은 나머지 온두라스로 건너가서 농장을 임차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목화를 재배했다. 이처럼 근면하고, 청렴하고, 가정적이고, 사생활이 깨끗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이내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국민들에게도 엄격했다. 특히 정치적 반대파에게는 엄격하다 못해 잔인한 짓도 주저하지 않았다. 1932년 1월에는 엘살바도르 공산당 지도자인 아구스틴 파라분도 마르티(Agustín Farabundo Martí)를 처형했고, 곧이어 피필(pipil) 족 원주민 호세 펠리시아노 아마(José Feliciano Ama)가 주도한 농민봉기가 발생하자 위수령을 선포하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때 학살당한 사람이 어림잡아 1만 명인데,¹⁾ 땅을 대충 파고 시신을 묻은 탓에 간신히 화를 피해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도 전염병에 희생되었다.

그러나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공산분자의 선동으로 원주민들이 봉기했다는 등, 소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등, 이념적인 공세를 펼치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는데 주력했을 뿐, 노상에서 시신이 부패하고 전염병이 나돌아

1) 정확한 희생자의 숫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역사학자들은 1만 명, 어떤 사람들은 2~3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도 나 몰라라 했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 널브러진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고, 방역에 나섰다.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돼지 같은 가축까지도 땅을 파헤쳐 시체를 파먹고 병에 걸려 속속 죽어나가자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렇다면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경제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럴 수도 있다. 1931년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가 부통령에 당선된 것도, 또 9개월 후인 12월 2일에는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제거하고 국회를 해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받은 것도 모두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엘살바도르는 ‘커피 공화국’이었다. 대토지를 소유한 14대 가문이 때마침 불어온 자유주의 무역에 편승하여 커피를 재배하고 수출함으로써 엘살바도르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29년 파운드 당 22.5센트이던 커피 가격은 대공황이 시작되자 급락세로 돌아서 1931년에 이르면 파운드 당 8센트로 폭락했다.²⁾ 이 시기 단작경제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경제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 경제도 커피라는 단일작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피 가격이 폭락하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리고 경제위기 여파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문,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의 활성화에 따라 이제 막 형성된 농업부문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이들의 고통 분담 요구로 점차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라틴아메리카 과두세력은 대개 유동성의 문제 등 자신들이 당면한 경제적 곤경을 손쉽게 타개해 줄 수 있

2) Gavin Fridell, 2007. *Fair Trade Coffee: The Prospects and Pitfalls of Market-Driven Social Justi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 120.



엘살바도르 커피농장

으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갈망하는데,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 정권도 이런 갈망에서 탄생했다. 앞서 언급한 1932년의 대학살은 물론이고, 흔히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외채탕감과³⁾ 담보은행 설립 또한 과두세력의 이익을 아낌없이 보장한 정책이었다.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가 이 정도로 그쳤다면, 이 시기에 등장한 수많은 라틴아메리카 독재

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에게는 인명보다, 경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만의 독특한 종교이다.

엘살바도르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 정부든 이런 경우 환자 치료는 물론, 방역을 하고, 예방 접종을 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홍보하는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 생각은 달랐다. 가로등이란 가로등은 모두 빨간색 셀로판지로 감싸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가로등 불빛이 병균을 죽이기 때문에 공기가 정화되고 전염병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 막내아들이 맹장염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직접 치료했다. 치료약은 이른바 ‘파란 물’이었다. 에르난데스 마

3) 엘살바도르의 외채는 1938년 모두 상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원금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이자는 1960년까지 변제해야 했다.

르티네스는 오래전부터 파란 유리병에 생수를 담아 대통령관저 양지바른 뜰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것이다. 결국,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들은 복막염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사들’이 아들을 구해주지 않았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체념하고 말았다.

이와 유사한 일이 요즘도 간혹 마스크에 오르내리지만, 사실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합리적 사고와는 거리가 먼, 맹목적인 견신론자(theosophist)였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사람은 함부로 죽여도 괜찮지만 모기와 같은 곤충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다. 사람을 1만 명이나 죽인 독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보니 등골이 오싹해지기는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서 어떤 논리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런데 그 논리라는 게 가관이다. 인간은 죽은 후에 부활하지만 곤충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곤충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중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곤충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어느 책에 그런 얘기가 쓰여 있더냐고 반문까지 한다. 이처럼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생각이 막힌 외골수 종교인의 광태를 드러낸,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이런 자가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면, 그것도 부족해 무려 13년 동안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뭔가 비결이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그 비결은 대개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작동한다. 국내적으로는 과두세력의 지지,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비호, 마지막으로 가톨릭교회가 합세해야 한다. 실제로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견실한 종교인으로서 가톨릭교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특히 호세 알폰소 베요소(José Alfonso Beloso) 대주교는 1932년 학살사건을 군사적 승리라며

대규모 감사미사를 집전했으며, 이후에는 줄곧 정치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를 이은 루이스 차베스(Luis Chávez) 대주교의 행보도 베요소 대주교 못지않게 정치적이었다. 이러한 종교와 독재 권력의 유착, 고위성직자들의 뒷거래 관행에 저항하다 희생된 인물이 로메로 대주교이 기도한데, 최근 시복(諡福)을 둘러싼 교황청 내부의 갈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면⁴⁾ 그의 순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2008년에 발행된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 기념우표

아무튼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의 위기는 뜻밖에 찾아왔다. 1943년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관세를 인상함으로써 과두세력의 역린을 건드린 게 치명타였다. 1944년에 이르면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나고, 여기에 노골적으로 군과 과두세력까지 가세하자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어쩔 수 없이 1944년 5월 9일 밤 9시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사임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1966년 5월 15일 온두라스에서 경영하던 대농장 하마스트란(Hacienda Jamastrán)에서 운전기사 호세 시프라노 모랄레스에게 17군데나 칼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 비록 권좌에서 물러났어도 그가 남긴 유산 때문에 20세기 엘살바도르는 폭정과 피로 물들었다. 역사가들은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를 50년(1931~1979)에

4) “엘살바도르 내전 기간 당시 극우파 저격 조직에 의해 암살당한 오스카[sic] 로메로 대주교를 시복하는 문제를 놓고 교황청 내부에서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로메로 대주교가 암살된 이유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 가운데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그 이유.”(연합통신, “로메로 대주교 '시복' 논란. 사후 평가도 양분”, 2007년 8월 3일)

걸친 군사독재의 막을 열었고, 그 후에도 13년(1980~1992)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죽고 죽이는 내전을 초래한 인물로 평가한다. 한마디로,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간 지도자’였다.

그런데도 이른바 민주화 시대의 엘살바도르 우정국은 2008년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마치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의 사임 성명서 한 대목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기는 듯하다.

본인은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인데, 사람마다 호오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믿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양심뿐입니다. 그 양심에 따르면, 본인은 의무를 완수했습니다.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역사보다 ‘양심’, 즉 기묘한 종교적 믿음을 앞세웠기에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부문의 등장을 애써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폭압적으로 억누르는 시대착오적 정치행태를 보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했다. 또 ‘양심에 따른 의무의 완수’라는 것이 실제로는 과두세력의 얼굴마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임을 결코 깨닫지 못한 어릿광대였다.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가 1944년 무대에서 끌려 내려온 이후에도 평범한 엘살바도르인들은 세대를 이어, 과두세력이 기획하고 연출한 피와 눈물의 잔혹극에 강제적으로 출연해야 했으며, 그 대가로 손에 쥐는 것이라고는 증오와 가난, 그리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민주화뿐이었다.□